

# 데이터베이스월드 뉴스

## 국내뉴스(DOMESTIC)

### 정보통신부

#### 올해 초고속응용기술개발사업 과제 확정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접속, 활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응용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연구개발수행 과제로 교육, 생활, 의료 등 5개 분야에 모두 1백 95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교육분야에 온라인 시험 등 33개 과제, 생활분야에 대도시 멀티미디어 대중교통정보시스템 등 76개 과제, 의료분야에 알기쉬운 재활의학 등 34개 과제, 사무분야에 데스크 탑 오피스 등 18개 과제, 기타분야에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의 대화식 이동기술 등 34개 과제다. 과제 개발 수행자는 학계 1백 17건, 산·학 협동 46건, 산업계 27건, 연구계 3건, 기타 2건이다. 선정된 과제 개발자들은 평균 4천만원씩 모두 80억원을 개발비로 지원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개발을 마치고 6월에 초고속선도시험망 공동이용센터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시연, 평가받게 된다.

#### 정보통신 사업지원 금융회사 설립추진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한국통신통신진흥(주)이 출자하는 정보통신전문금융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보통신부가 초기 자본금 1백 50억원 규모로 설립을 추진 중인 정보통신전문금융회사는 국산 주전산기 등 국산 정보통신제품의 보급확대를 통한 정보회축진,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증진, 중소정보통신기업의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현재 재정경제원과 설립을 협의 중이다.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 47개 과제 확정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경쟁력강화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로 비동기전송모드(ATM) 및 종합정보통신망(ISDN) 망에서 다자간 동시통화 영상회의를 위한 중계장치 등 47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은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신청된 99개 과제에 대한 심의 결과 하드웨어 분야에 27개 과제 38억 7백만원, 소프트웨어 분야에 20개 과제 24억원 등 총 62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드웨어 분야의 경우, 교환접속장치에 6개 과제 9억 3천 7백만원, 전송단말장치에 8개 과제 11억 6천 2백만원, 핵심부품에 13개 과제 17억 8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접속시스템에 12개 과제 14억 3천 9백만원, 데이터처리시스템에 8개 과제 9억 6천 1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교육부

#### 인터넷 자료정보 사전심의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가동예정인 교육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EDUNET)을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의 자료 및 정보를 사전심의, 청소년이 음란물 등 불건전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정보회추진분과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DUNET구축·운영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위원

회는 인터넷 활용환경조성을 위해 건전한 교육자료·정보를 조사,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인터넷 자료·정보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의 및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정보에 접하는 것을 차단시키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EDUNET 구축·운영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맡아서 추진하고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연내 정부출연기관형태로, 첨단학술정보센터는 올해부터 '98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반조성을 한 뒤오는 '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각각 설립키로 했다.

## 한국통신

### 96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에 50개 제안서 접수

한국통신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백 50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 개발하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정보 등 올해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대상 10개과제에 한국무역시장정보, 서일경제연구소 등 50개업체가 제안서를 접수시켰다. 과제별 제안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정보 4건, 천문·해양정보 5건, 청소년종합정보 5건, 산업디자인종합정보 6건, 자연생태계정보 7건, 신문·방송정보 2건, 정부백서 정보 4건, 한국음악정보 7건, 전통문화정보 3건, 중소기업 진흥정보 7건 등이다.

### 해외정보센터 문 열어

한국통신은 국내외 정보통신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인트라넷(기업내 인터넷)를 통해 교환이용할 수 있는 해외 정보센터를 최근 서울 광화문 본사에 개설, 이달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업체 임직원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 출장시에도 임의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고 국내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볼 수 있는 해외이동사무소인 정보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 데이터베이스 이용협정도 체결했다.

## 공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용 기본SW, 美 인포믹스 소프트웨어사의 '일러스트라' 선정

한국통신의 멀티미디어 공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객체관계형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ORDBMS)으로 美 인포믹스소프트웨어사의 일러스트라가 선정됐다. 한국통신은 최근 실시한 멀티미디어 공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용 기본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일러스트라를 갖고 참여한 한국에이아이소프트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한국에이아이소프트는 美 베리티사의 정보검색시스템과 美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의 웹서버로 각각 참여한 (주)쓰리소프트 및 다우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 이번 입찰에 참여했었다. 이번 기본SW의 낙찰금액은 1억 4천만원이다. 한국에이아이소프트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신기술로 급성장 하고있는 ORDBMS 시장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CALS협회

### 기술협회의 협의회구성

통신부 산하 한국CALS/EC협회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CALS/EC기술협회는 최근 합동 이사회를 갖고 양 협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한국CALS/EC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양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사장을 의장으로 선임했다. 협의회는 CALS(생산, 거래,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EC(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산·관·학계의 활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정책 및 기술개발을 건의하고 산업내 CALS진흥을 위한 모든 활동을 지원해주는 범부처, 범기업적 성격의 단체다. 기술협회와 협회는 업무협조를 위해 협의회 산하의 공동 사무국을 두고 각종 조사 및 출판사업, 세미나, 전시회, 포럼 개최, 교육·자문 및 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정책개발 및 대정부건의, 시범사업 추진업체 선정,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LG-EDS시스템

### 인트라넷 전자우편 구축

LG-EDS시스템은 사내 전자우편 시스템을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정보통신망인 인트라넷 환경으로 전환, 임직원간에 기존의 문자정보외에 그림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올초 사내 정보시스템인 레이더(RADAR)를 인트라넷 환경으로 전환한 LG-EDS시스템은 사내 인트라넷 구축경험을 바탕으로 그룹계열사에 이를 확산하는 한편 숙명여대 캠퍼스에 인트라넷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그룹의 시장에서 인트라넷 구축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한국생산성본부

### 정보검색사 교육과정 개설

정보량의 급속한 증가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정보의 적절한 활용에 곤란을 느끼게 한다. 정보의 활용은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조직과 개인간에 정보의 수집/ 활용에 있어서 편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보검색사란 개인이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전문적으로 대행/ 검색하는 전문인력을 지칭한다. 즉 실제 존재하는 각종 정보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적인 기능 인력으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형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 제공/ 분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담당/ 운영할 사회적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정보의 유통에 큰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에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전문적인 정보 검색인을 양

성하고자 금년부터 “정보검색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 정보화사업부 724-1214, 1222)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 20개과제 선정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경쟁력 강화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분야에 초고속 광전송장치를 위한 제너릭관리시스템 등 총 20개과제가 개발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96년도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에 SW분야 20개 수행기업 및 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부에 추천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추천한 SW개발과제는 접속시스템부문의 초고속 광전송장치를 위한 Generic관리시스템의 개발(한국IST),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설계 툴 개발(우림정보통신), 무선LAN 액세스 포인트시스템개발(LAN연구조합) 등 12개과제와 데이터처리시스템부문의 화상회의용 압축 SW알고리즘 개발(한국컴퓨터통신), 웹(Web)서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객체지향 개발도구 저작 등 8개과제다. 20개 과제의 신청액은 모두 36억 3천 4백만원으로 접속시스템 부문에 21억 2천만원, 데이터처리시스템부문 15억 1천 4백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이달말경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개발과제를 확정짓고 총 24억여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천된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초고속관련 SW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각 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킬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초고속경쟁력 강화기반기술 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45개 기관 및 업체로부터 51개과제를 접수하고 세부과제별 평가과정을 거쳐 공급강화 촉진협의회 심의를거쳐 최종 추천과제를 선정했다.

## 삼성물산

### 종합상사형 데이터베이스 "에스원" 시스템 개발

삼성물산은 종합상사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추적시스템인 '에스원'을 개발했다. 삼성물산이 임직원 및 본·자사간 정보의 공유와 추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해외시장정보를 비롯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 두산정보통신

### 국제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두산정보통신은 통계청이 발주한 국제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경제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통계청의 국제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인구, 농업, 광공업, 건설, 운수, 에너지 등 통계부문별로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두산정보통신은 전세계 기관 및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각각 다른 형태의 국제통계 자료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성한 뒤 국내업체와 관공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산정보통신은 자동으로 국제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번역 및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데이콤

### 천리안 매직콜 통해 족보/촌수 정보 서비스

PC통신을 이용해 족보와 촌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데이콤은 천리안 매직콜을 통해 "뿌리를 찾아서" (go root)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 존재하는 3천 3백여개의 본관 가운데 인구 1만명이상으로 구성된 3백개 성씨를 기본으로 족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

비스는 각 성씨에 대한 유래와 시조 및 인구 분포 등 성씨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나의 뿌리", 성씨에 얽힌 전설을 알려주고 제사지내는 방법과 친척의 호칭 및 촌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상식",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정보안내" 코너로 구성돼 있다. 데이콤은 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드림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2001년 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성씨 및 본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해외의 족보관련 데이터베이스와도 정보를 교환해 외국의 족보와 성씨관련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문헌정보 96년판 CD롬 타이틀 제작

국립중앙도서관은 58만여종의 도서정보를 담은 CD-ROM타이틀 "한국문헌정보" 96년판을 제작, 보급한다. 이 CD-ROM은 지난 45년이후 올해 2월말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일반도서 28만 4천여종과 석·박사학위 논문 30만 1천여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서명, 저자명, 주제어, 발간년도, 분류기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등의 검색항목만 알면 원하는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각급 도서관에서의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도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인력 및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 이 CD-ROM을 연 2회 갱신 제작해 최신 도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외뉴스(FORIEGN)

### NEC, 일본 오라클과 제휴 강화

NEC와 일본오라클(도쿄 치요다)는 基幹업무

시스템용 통합패키지 판매분야에서 제휴관계를 강화한다. 오라클의 통합 패키지 제품 오라클어플리케이션의 판매를 축으로, 국내와 동남아시아 시스템사업에서 협력을 진행시킨다. NEC는 앞으로 3년간 오라클과의 협력으로 500억엔의 매상고를 기대하고 있다. 제휴를 강화키로 한 분야는 데이터베이스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재편성·보관하는 데이터 wear house분야, 회계나 생산관리, 受發注·재고관리 등 기간업무용 통합 패키지 분야, 기술자 교육과 일본화 사양의 검토 등의 3분야이다.

### 일본, 인트라넷 구축 붐, 정보산업계의 수주경쟁 치열

일본에서 인트라넷 구축이 붐을 이루면서 정보산업계의 인트라넷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양엔지니어링과 학습연구사에 이어 도쿄가스 등 상당수의 기업들이 사내업무의 혁신을 위해 인트라넷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원하는 즉시 인트라넷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산업계의 경쟁력 제고가 활발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컴팩사·컴팩은 지난달 말 CSK 오츠카상회 등 시스템 구축 및 회선접속분야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10개사와 기업연합을 형성한데 이어 연말까지는 참여기업을 2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기술 및 서비스의 상호보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겨냥한 것으로 NEC, 후지쯔 등 자체적으로도 인트라넷 구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업체들에의 대응전략으로 풀이된다.

### 미, 넷스케이프, 애플 등 '네트워크컴퓨터' 프로젝트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업체들은 개인용컴퓨터와 함께 다음세대의 핵심적인 개인정보기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는 네트워크 컴퓨터(NC)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계 2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인 오라클과 인터넷 검색프로그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넷스케이프, 워크스테이

션시장의 1인자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및 컴퓨터업체인 애플·아이비엠 등이 참여 하고 있다. 약 5백달러 수준에서 판매될 네트워크 컴퓨터는 기존 개인용컴퓨터에 장착되는 값비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없이도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WWW) 등에서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美AST, 1천달러미만 멀티미디어PC 선봬

5백달러짜리 인터넷 전용단말기가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AST리서치가 대형 소매유통 업체인 월마트를 통해 모뎀과 모니터 포함가격이 1천달러미만인 멀티미디어 PC를 판매, 관심을 모으고 있다. AST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486프로세서를 탑재, 초보자들을 주로 겨냥한 이 어드밴티지 어드벤처 시스템은 업계 최초로 멀티미디어기능을 구현하 면서 가격을 1천달러미만으로 낮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AST는 우선 이번 주말부터 월마트에 공급하고 앞으로 미국내 2천개의 소매점에도 이 제품을 출하할 계획이다. 시스템 사양으로는 인텔 486프로세서와 8MB 메모리, 540MB HDD, 4배속 CD-ROM드라이브, 사운드 블래스터, 14.4kbps팩스/모뎀, 스테레오스피커, 14인치 모니터를 채용하고 있다. 또 윈도95를 운용체제로 하고 있으며 MS 워크4.0, 머니4.0, 골프 2.0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AST는 이번 어드밴티지 어드벤처의 판매가 재고 처리를 위한 일시적인 할인판매가 결코 아니며 자사와 월마트는 앞으로도 계속 1천달러미만의 제품을 생산,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 美MS,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기술 채용 데이터베이스 웹 1.1 발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기술을 채택한 데이터베이스 웹 1.1을 발표했다.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및 인트라넷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이 기술을 채용한 데이터베이스 웹 1.1은 ODBC(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에 기반한 데이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서버를 연계시켜 월드와이드 웹에서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

데이터베이스 웹은 또 32비트 ODBC 규격을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 美선소프트, NFS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내달 공급

미국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회사인 선 소프트웨어가 기존 FTP(파일전송 프로토콜)나 HTTP(하이퍼 텍스트전송 프로토콜) 표준보다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NFS(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의 새버전을 내 달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미 컴퓨터전문지인 PC위크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선 소프트웨어가 최근 개발한 웹 NFS 프로토콜은 LAN환경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웹서버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원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 소프트웨어는 웹 NFS를 표준 프로토콜로 추진하기 위해 이 달중으로 이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계획이며 오는 6월부터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넷라 NFS 전용 서버 신제품에 이를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美 베이유넷, 인터넷 LAN연결사업 협력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베이네트위크스와 인터넷접속 서비스업체인 유유넷 테크놀로지가 기업내 근거리 통신망(LAN)과 인터넷을 연결시켜주는 애플리케이션의 공동 제공에 나선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들 두 회사가 오는 6월부터 기업의 데스크탑 PC를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인스턴트 인터넷 프로바이더 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베이네트위크스는 관련 기술과 장비를, 유유넷

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양사는 이 인스턴트 인터넷 프로바이더 팩 서비스가 별도의 시스템 통합(SI)작업 없이도 가능하는 등 시스템 솔루션의 구축 및 이용이 쉽고 종합 디지털통신망(ISDN)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화회선에 비해 4배정도 빠른 전송속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美HP-넷스케이프, 인트라넷 사업 제휴

미국 휴렛 팩커드(HP)사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트라넷 시장을 겨냥,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미 뉴욕 타임스지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앞으로 전세계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인트라넷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두 회사는 유닉스 및 윈도우에 기반한 인트라넷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하고 하드웨어는 HP가, 소프트웨어는 넷스케이프가 각각 맡기로 했다. 또한 이 제품의 마케팅과 고객지원을 비롯한 자문서비스는 HP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에 인터넷 광고 전문회사 등장

인터넷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광고가 일본에도 곧 등장한다. 日本經濟新聞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電通과 소프트뱅크 두 회사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전문으로 광고를 기획·대행하는 광고 대행사를 공동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두 회사가 오는 7월 설립하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즈는 자본금 1억엔으로 電通측이 51%, 소프트뱅크가 49% 출자한다. 주로 홈페이지 제작회사나 PC통신 운영회사등을 대신해 광고주를 물색하고 광고를 기획, 제작한다. 매출액은 올해 4억엔, 2000년에 연간 1백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 광고는 미국에서는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이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야후의 네트워크 광고대리점을 하고 있는 미국 자회사 소프트뱅크 인터랙티브 마케팅사로 부터 노하우를 도입 할 예정이다.

### 美인텔, 브로드밴드, 고속 인터넷 접속 공동 개발

미국 인텔사와 브로드밴드 테크놀로지사가 고속 인터넷 접속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현재 가정에서 전화선을 이용한 PC모뎀보다 1천배 이상 빠른 속도로 양방향 인터넷 및 웹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PC인터넷페이스 카드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인텔이 개발을 담당하게 될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먼저 일반 가정용 PC에서 현재 전화업체들이 시험운영중에 있는 새로운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사용할 경우 기존 케이블 모뎀 솔루션보다 1백달러정도 저렴하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업체들은 이 기술을 이용, 고속 온라인 접속서비스도 가능하다. 인텔은 먼저 이 기술을 브로드밴드에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이 회사의 광 루프 액세스 시스템과 결합, 전화업체들에게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며 내년께 이들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 美램버스, 데이터 전송 용량 2배높인 16MD램용 램버스 사양 발표

램버스 사양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속 D램에서 반도체업체들의 램버스사양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日經産業新聞'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램버스사는 램버스사양의 고속 16MD램을 개량, 데이터 전송 용량(유효 밴드폭)을 종래의 2배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또 이 신기술은 삼성전자, 도시바, NEC 등 한국과 일본의 5개 반도체업체들이 내년부터 양산하는 16M 램버스 D램에 도입될 예정이다.

램버스 D램은 데이터 액세스에 오류가 발생한 후 다음 데이터를 접수할 때 까지의 대기시간이 싱크로너스(동기식) 등 보다 긴 것이 결점이었다. 그

러나 콘커런트 아키텍처라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이러한 단점이 보완, 단위 시간당 데이터 전송의 유효 밴드폭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고속화를 실현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프로세서(MPU) 등의 명령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두개의 메모리뱅크중 한 군데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었는데 콘커런트 아키텍처의 도입으로 동시에 두군데에서 액세스가 가능하게 돼 한 곳에서 액세스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다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16M 램버스 D램에서 1백 48ns였던 에러정정 시간을 80ns로 단축할 수 있고 그 결과 데이터를 전송할 때 유효밴드폭이 2배가까이 향상됐다. 삼성전자와 NEC, 도시바외에 LG반도체와 오키電氣도 이 아키텍처를 채용, 내년 상반기중 순차적으로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 美넷스케이프·선·사이버캐시, 전자화폐 표준 개발 협상

미국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사이버캐시 등 3개사가 인터넷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전자화폐 소프트웨어표준 개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美 윌스트리트 저널紙는 최근 이들 3사가 인터넷에 접속, 상품을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 전자화폐 소프트웨어표준 개발협상을 진행중에 있다고 보도하고 이들 3사간 합의가 이뤄지면 명실상부한 업계표준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3사의 표준은 사이버캐시 등이 이미 개발, 출시한바 있는 '윌렛'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넷스케이프와 선사의 기술이 결합된 소프트웨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용자의 PC 하드디스크에 신용카드 번호를 저장해 놓고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이를 통해 신용카드번호를 판매자의 PC로 전송, 암호를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QC**